

샤론스톤, 칸 영화제 에이즈기금 38억 모아



제59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할리우드 스타 샤론 스톤이 '이색 기록'을 세웠다. 에이즈 연구기금 자선 경매 행사에서 400만 달러(약 38억원)를 모금한 것이다.

AFP통신은 "칸 영화제의 부대행사로서 25일 열린 미국 에이즈 연구재단(amFAR)의 자선 경매 이벤트가 샤론 스톤의 '집요함' 덕분에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재단의 설립자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건강 악화로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대신 행사를 주관한 샤론 스톤이 '6초마다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며 700명의 참석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슈퍼 코리안' 테니스 강 '무사도 11' 출사표



혼혈 격투기 선수 테니스 강(29)이 29일 강남구 CJ미디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테니스 선수들의 독일월드컵 선전을 기원하며 '프라이드 무사도 11'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슈퍼 코리안'이란 별명이 있는 테니스 강은 "한국 축구대표팀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에 올랐고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의 월드컵에서 우승하겠다"고 말했다.

테니스 강은 4일 오후 4시 일본 사이타마 현 슈퍼아레나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웰터급 그랑프리 16강전에서 브라질 출신의 무필로 난자(26)를 상대로 프라이드 4연승을 노린다.

지난달 22일 국내 종합격투기 대회에서 알버트 바스콘셀레스(32·미국)에게 1회KO승을 거둔 테니스 강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한달 동안 브라질 유술과 레슬링, 복싱 기술을 연마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개그맨 백재현, 난청인 후원단체 홍보대사



난청을 앓고 있는 개그맨 백재현이 난청인을 위한 후원단체인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백재현은 26일 밤 서울 대학로 씨어터극장에서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고 청각장애자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착용하듯 난청 환자들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수술을 받으면 정상인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수술비가 없어 수술 기회를 놓쳐 평생 난청으로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증권 탤런트 김민자가 '사랑의 달팽이' 회장으로 취임했다.

홍석현 前중앙일보 회장 장남 결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뒷줄 왼쪽 첫번째)의 장남 정도(뒷줄 왼쪽 두번째)씨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서울대 공대 유재현 교수(뒷줄 오른쪽 첫번째)의 장녀인 선영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박전배(광주웅변협회 회장)씨 장남 상훈(원주 MBC 기자)군 전직 수(쌍학 대표)씨 장녀 정미양=6월 3일(토) 낮 12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서장석씨 장남 중원군 장상열(데미화랑 대표)씨 장녀 예준양=6월 4일(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12층 리더스클럽.
▲고충석씨 장남 훈군 황영성(서양화가)씨 장녀 지은양=6월 4일(일) 낮 12시30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호텔프리마 3층 그랜드볼룸.
▲정안석씨 장남 재호군 선병완씨 장녀 성희양=6월 4일(일) 낮 12시 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센터 컨벤션홀.
▲박현순씨 차남 김기현군 주선자씨 3녀 사경리양=6월 4일(일) 오

- 후 1시 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센터 컨벤션홀.
동창·동문회
▲몽중·고재광 동창회(회장 임동호) 제 29차 정기총회=6월 1일(목) 오후 6시30분 오페라하우스 컨벤션홀. 236-3399
▲광주·전남 영암구림초교 제 58회 전반기총회=6월 3일(토) 오후 5시 산천문화로1로 진흥구이 223-5165
▲전남대 간호대 동창회 정기총회=6월 3일(토) 오후 4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다이아몬드홀.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동문회 가족한마당=6월 4일(일) 오전 10시 대운동장. 011-9622-9707
▲조대부고 제 23회(회장 조철호) 체육행사=6월 4일(일) 광주충효분교 운동장. 017-601-1303
▲광주 사대부중 제 4회(회장 전

'하인스 워드 도움의 손길 재단' 설립 발표

"어머니 사랑 한국 혼혈아에 돌려줄 때"

미국 프로풋볼(NFL)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30)는 29일 오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인스 워드 도움의 손길 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워드는 "기아자동차 후원금을 포함해 한국 내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현재 기부금 액수가 120만달러에 이르렀다"며 "재단 설립에 대한 개인적인 결의를 보이는 의미에서 100만달러를 기부해 이 기금으로 재단을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100만 달러 기부, 재단 시작

그는 "재단의 장학금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하고자 '영희 워드'라는 이름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근면, 성실한 학생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이번 재단 설립은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어머니께 드리는 선

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매니저팀이 한국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해 재단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할 것"이라며 "운영 시스템이 갖춰지면 필버드 재단과 협력해 후원금을 보살피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단이 안정적인 운영권에 접어들면 혼혈아들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전국의 모든 아동을 위한 재단으로 확장하겠다"며 "앞으로 한국 유명인사 및 기업체, 혼혈인 차별대우에 반대하는 사람과 운영진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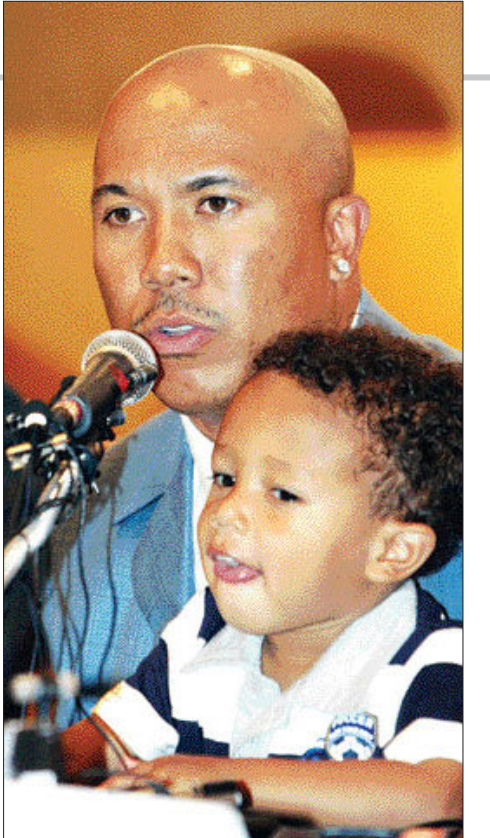
하인스 워드는 "지난번 필버드 재단을 방문해 혼혈아들을 만났을 때 가장 가슴 뭉클했고 미국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미국에 운영중인 재단에 이어 한국에 아동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립 배경을 밝혔다.

그는 필버드 재단과 별도로 독자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단의 성격이 단지 혼혈아들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없는 아이를 포함해 불우한 아동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우아동 같이 돕는데 초점"

그는 혼혈 아동을 위한 특별 메시지에서 "지난번 방문할 때 나와 다르지 않는 혼혈아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며 "어머니가 나를 위해 희생했듯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그런 사람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이번 NFL 시즌에서 자신의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응원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다음에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해 있는 것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인스 워드가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진 '하인스 워드 복지재단' 설립발표 기자회견에서 아들을 안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美 프로풋볼 사상 한국계 형제 선수 첫 탄생

울시즌 형제 맞대결 기대 둘 다 최후방 수비수 맡아

한인 이민 역사와 미식축구 사상 처음으로 한국계 미프로풋볼(NFL) 형제 선수로 탄생했다.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지난 8일 샌디에이고주립대학(SDSU)을 졸업한 수비수 마커스 템프스(23)와 1년간 계약했다.

키가 나란히 180cm인 이들은 모두 로스앤젤레스 북쪽 팜데일에 있는 하일랜드 고교와 SDSU를 졸업했으며 포지션도 상대편의 공격을 인터셉트와 태클 등으로 저지하면서 수비의 최후방을 지키는 세이프티(safety)이다.

특히 지난 시즌까지 아메리칸 풋볼 콘퍼런스(AFC)의 볼티모어 레이븐스 소속이던 프로 5년차의 윌이 올 시즌 디트로이트가 속한 내셔널 풋볼 콘퍼런스(NFC)의 자이언츠로 이적함에 따라 형제간 맞대결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게 됐다.

이들 형제는 20년동안 미 공군에 근무했던 흑인 아버지 윌리엄 템프스와 한국인 어머니 게 템프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키가 나란히 180cm인 이들은 모두 로스앤젤레스 북쪽 팜데일에 있는 하일랜드 고교와 SDSU를 졸업했으며 포지션도 상대편의 공격을 인터셉트와 태클 등으로 저지하면서 수비의 최후방을 지키는 세이프티(safety)이다.

미식축구에서 흑인 아버지와 일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 형제는 남가주대학(USC) 출신의 자니와 채드 모튼이 유명하지만 한국계로는 윌과 마커스 템프스가 처음이다. 마커스는 윌처럼 올레 풋볼 드래프트

에서 뽑히지 못했지만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투기 캠프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인 마커스와 계약했다. 윌은 수비가 강하기로 유명한 볼티모어에서 4년동안 주전으로 활약하다 올시즌 프리 에이전트로 풀리자 수비를 강화하려는 뉴욕 자이언츠, 미네소타 바이킹스, 마이애미 돌핀스 등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뒤 뉴욕 자이언츠와 1천200만달러에 5년간 계약했다.



올 시즌부터 뉴욕 자이언츠에서 뛰는 친형 윌 템프스(왼쪽)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1년간 계약한 동생 마커스 템프스.

광양제철남초 김서현양 6년간 읽은 책 2000권 '나는 독서왕'



초등 6학년생이 6년간 2천여권의 책을 읽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광양제철남초등학교(교장 박보영)에 다니는 김서현(13)양.

김양이 1학년때부터 지금까지 읽은 책 2천여권은 1년에 330여권, 하루에 한권의 책을 읽은 셈이니 엄청난 독서량이다.

독서 분야도 다양해 동화책, 과학서적, 환경 분야 등 '독서 편식'도 하지 않는다.

또 책을 읽고 나면 반드시 독후감을 쓰는 습관이 됐고 그러다 보니 글 쓰기 능력도 쑥쑥 늘어 각종 교내외 백일장대회에 나가 상을 휩쓰는가 하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토론대회에서도 단연 두각을 보였다.

김양은 올해 학교 독서왕으로 뽑혀 29일 포스코교육재단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김양은 이미 3학년때 학교가 특

정분야에 독특한 소질과 집념을 보이는 학생을 발굴해 시상하는 '광철남 과제'에 선정된 유명인사이기도 하다.

김양은 "뽕감머리 앤"과 '키다리 아저씨' 책을 가장 좋아한다"면서 "동화책가가 꽤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있고 교훈적인 글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김양의 어머니 유정애씨는 "서현이가 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면서 "책 읽으라고 강요해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고교인 광양제철남초등학교 교감은 "그동안 독서왕 후보에 서현이가 많이 뽑혔는데 선배들에게 기회를 주다보니 이번에도 독서왕에 뽑혔다"면서 "독서를 열심히 하는 어린이는 학업의 모든 분야에 특별한 잠재력을 지니게 된다"고 말했다.

저소득 자녀 무료 강의 나선 지호원 학원장

"공무원 시험 합격 그날까지 도울것"

광주의 한 공무원 시험 전문학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저소득층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시험을 포기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실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선발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프로그램을 마련한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이그랜드시하원 지호원(43·사진) 원장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돈이 없어 학원에 나오길 포기하는 경우를 접하곤 했다"며 "이런 친구들

이 돈 걱정 없이 시험을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에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일반 학생 20명, 저소득층 자녀 10명 등 30여명 수준이다. 지원자 100여명은 지난 25일 시험을 치렀으며 이 중 선발된 인원은 발표일인 다음달 2일 이후부터 '공무원이 될 때까지' 이 학원을 이용할 수 있다. 학원 측은 교재비를 포함해 학생 1인 당 연간 200만원 가량을 내놓을 셈. 지난해 7월 개원한 이그랜드 학원은 서울 노량진에 본사를 둔 지사 형식의 학원이다. 지 원장은 "새롭



게 시작하는 학원인 만큼 지역 토착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도 빼놓을 수 없었다"며 "선발하고 교재를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은 스터디 그룹 등을 통해 특별하게 관리해 꼭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방

▲니영호씨(신문유통원 홍보위원)

Advertisement for '무등장례식장' (Mudeung Funeral Home)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listed.

Advertisement for '생활 게시판' (Life Noticeboard) listing various community events, meetings, and services.